

# 무주 전통공예촌 입주 박선율 작가 도예전

최북미술관서 10일까지 '구름조각' 주제 40여점 전시

무주 전통공예촌에 입주한 박선율 작가(51)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도예작품(도자기)을 전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작가의 손 때가 고스란히 묻어난 '구름 조각' 도예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도예전에 출품한 작품 40여점은 '구름 조각'을 주제로 했다.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박 작가의 풍부한 감각이 새록 새록 스며든 작품들이다.

이에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을 찾은 관람객들은 박 작가가 출품한 도예품을 바라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였다. 그만큼 문화에 갈증을 느낀 주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시키는 신선한 도예작품들이다.

박 작가가 출품한 이번 도예품들은 구름을 소재로 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마당정원'은 집 앞 마당에 떨어진 구름들이 다시 생명이 되어 동물과 인간이 되는 조형물로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구름을 좋아해 구름을 동기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그는 "구름은 단지 하늘에 동동 떠 다니는



무주 전통공예촌에 입주한 박선율 작가(51)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도예작품(도자기)을 전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존재가 아닌 다시 생명체가 되어 날아다니는 존재로 승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구름 한 조각이 마당에 내려 앉아 아이가 되려는 듯, 혹은 강아지, 이제 막 자라 올라온 선인장이 되려는 듯 변형돼 가는 동화적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작업했다"고 말했다.

또 '하늘에 존재한 파도'를 표현한 작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맑은 날엔 뽕송뽕송한 구름도 있듯이 기상이 좋지 않을 때 하늘에 파도가 있음을 표현했다. 이에

그는 변화가 심한 구름의 움직임을 도자기로 형상화 했다는 것. '무엇이 되어 불까' 작품은 사다리꼴과 도예 작품을 등장시킨 점이 특징이다.

그는 "땅에 떨어진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그리는 과정이고 탄생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사다리를 통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표현했다"고 작품세계를 설명했다.

이번 도예전을 통해 '구름조각' 작품을 내놓은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주 터기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전시를 비롯해 더 숲 갤러리 한국-터기 5인 워크숍 전시, 코엑스 디자인 박람회 및 다수의 수상과 전시, 워크숍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전남 곡성이 고향이며, 지난 2020년 9월 무주 전통공예공방에 입주하면서 풀꽃 무주에 정착했다. 도자기 공예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자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중단없는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다부진 계획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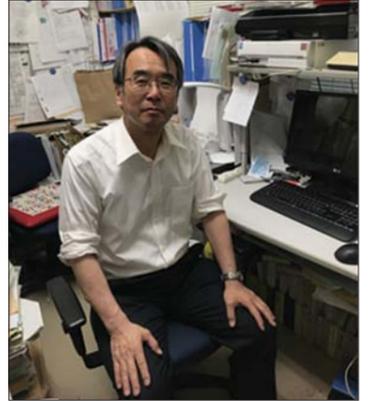
양정은 화에서는 "도자기라는 단순한 장르의 개념을 넘어 구름과 연관시킨 조형물로 승화시키고 구름에서 다시 생명으로 잉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시회장을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국립익산박물관, 가메다 교수 장서 기증받아

일본 역사고고학 권위자로 8700여권 기증... 향후 소장 모든 장서 기증키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은 지난 5월 일본 오카야마이과대학 가메다 슈이치 교수(사진)의 장서 8,700여 권을 기증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가메다 교수는 일본의 역사고고학 권위자로, 특히 일본 고대문화에 보이는 백제의 영향, 소위 도래계(渡來系) 문화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지한과 연구자다. 그는 1970년대,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충남대학교에서 수학하며 백제 기와 연구를 시작했고, 규슈대학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대 기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는 오카야마이과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고대 한일관계와 일본의 고대 불교사찰에 보이는 백제의 영향에 대한 훌륭한 연구성과를 쌓아왔다.

한편 가메다 교수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충남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맺어온 한국인 연구자들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함께 수학한 서오선 전 국립부여박물관장, 후배인 김종만 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 등과의 인연으로, 퇴임 후 평생 모아온 장서를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백제의 대표 불교사찰인 익산 미륵사지에 새롭게 들어설 국립익산박물관이 그 뜻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혔다. 이에 장년을 맞이한 올해 3월, 장서 정리가



마무리돼 지난 5월, 1차로 8,700여 권이 익산에 도착했으며, 향후 수년 안에 소장한 모든 장서를 국립익산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향후 나머지 기증 장서의 운반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건물을 추진 중인 국립익산박물관 아카이브관에서 가메다 장서를 관리·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박물관, 수장고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은희)은 2022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내년 1월까지 수장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완화된 코로나19로 맞이한 일상 회복을 지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이에 전북대박물관은 4일부터 투어 신청을 받는다. 투어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회당 15명을 원칙으로 한다.

전북대박물관 수장고에서는 전라강영에서 책을 인쇄할 때 사용했던 책판과 조선시대 고문서를 관람하고,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일정은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청은 전북대박물관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



료실에서 수장고 견학 신청서를 내려 받아 FAX(063-270-3487) 또는 이메일(museum@jnu.ac.kr)로 제출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 문화마을 걸쳐랩 '익산을 부탁해 시즌3-문화마을29 시민제안' 공모

익산시는 문화마을 걸쳐랩 공모로 법정문화도시 익산의 다이로운 출발을 알린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문화마을 걸쳐랩 '익산을 부탁해 시즌3-문화마을29 시민제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마을 걸쳐랩 공모사업은 '모든 마을은 특별하다!'를 주제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해 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주민참여 문화 플랫폼 사업이다.

센터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별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익산시민으로 본인이 살고있는 마을에 관심 있는 3인 이상의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월 1일(금)부터 7월 22일(금)까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다양성 사업형 △문화공간·골목길·문화거리·꽃밭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문화공간형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인 문제해결형 △마을의 역사를 알아보고 기록하는 마을사 탐구형 등 4가지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로 3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번 사업은 시민의 주체적 참여로 법정문화도시 선정에도 크게 기여한 사업이다. 이번 시즌에도 29개 읍



영동동 커피가 좋아서 모습

면동 마을 공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문화마을 걸쳐랩 사업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모든 사업에 있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익산이 법정문화도시 지정 이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첫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마을29 사업을 통해 법정문화도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앞으로 삼삼오오, 왕도정원기꾸기, 탄생석 프로젝트 등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16일 오후 5시 박물관 강당에서 명품 어린이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 작품은 '제4회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아동청소년부분 아시테지상 최우수 어린이 창작 작품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호랑이가 등장하는 3편의 전래동화 '호랑이와 꽃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 형님'을 마당극 형식으로 엮어, 꼬마 도깨비대장 '뚝딱하니'와 함께 사교몽치 호랑이를 잡으러 떠나는 모험 속에서 아이들은 겁

쟁이 호랑이, 옥심쟁이 호랑이, 효성 깊은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또한 관객이 직접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고, 춤을 추는 등 공연에 참여, 공연단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관람예약은 8일부터 선착순으로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nju.museum.go.kr)에서 접수한다. 입장인원은 최대 230명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대비해 행사 전 공연장 소독과, 관람객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성명서

신천지예수교회 도마지파 1만 5천 성도는 지난 6월 16일 소속 여 성도가 전 남편에게 회생된 사건에 대해 매우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먼저는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를 한 언론 중 CBS 노컷뉴스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살인을 정당화 하는 듯하며,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왜곡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6월 18일자 기사에서, 살인 가해자인 전 남편에게 "신천지 종교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답변을 유도하고, "신천지에 빠져서 자녀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유도질문을 하여, 살인범죄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고 종교로 몰았습니다. 피해자인 전 처가 신천지교회 신앙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자녀와 헤어져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고 마침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살인범에게 쏟아질 비난을 종교 탓으로 몰아서 신천지 혐오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CBS 노컷뉴스의 이같은 행태는 언론이라면 하연 안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미 2020년 10월에 전 남편과 여 성도는 이혼을 했으며, 이혼사유도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경제적 이유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한 게 아닌 증거입니다.

또한 전 남편이 여 성도의 신천지교회 신앙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인 2022년 6월 15일이고, 다음날인 6월 16일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종교 때문에 가정불화와 갈등을 겪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자녀와 헤어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전혀 맞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허위 왜곡보도를 한 CBS 노컷뉴스 측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이라는 갑질로 피해 여성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를 하고 살인을 정당화하듯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BS와 노컷뉴스의 신천지교회에 대한 허위 왜곡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신천지교회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CBS측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방송내용이 CBS측에 의해 조작된 내용으로, 신천지교회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16년에 CBS방송사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라는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종교 혐오를 조장하는 CBS와 노컷뉴스는 폐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신천지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2022. 6. 30

신천지예수교회 도마지파 성도 일동